



연분홍 물결 1일 경남 산청군 생초 국제조각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꽃잔디 축제장이 연분홍 꽃잔디로 뒤덮여 있다. 꽃잔디 축제는 오는 5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지방 소식

전북도-김제시-전주시-완주군 축산냄새잡기 머리 맞댄다

올해를 축산환경개선 원년으로 선포한 전북도가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 개선을 위한 초강도 대책을 마련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축산냄새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전북혁신도시 냄새민원 해소를 위한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사업을 6월중 본격 착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개선 사업은 전북도와 김제시를 비롯해, 혁신도시가 소재한 전주시와 완주군이 서로 협력하고 재원을 분담해 추진하게 된다. 용지 지역 축산농가에 안개분무시스

템 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시설밀폐, 탈취 설비, 안개분무시스템 등을 설치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혁신도시 등 주변 주민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전북도는 이를 위해 2019년 본예산에 155억원 투자 규모의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 시설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김제 용지 외에도 축산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냄새저감 대책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전북=봉채영 기자

인천시 시내버스터 와이파이 빵빵 터진다

인천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민생해결 과제인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1900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약을 체결

해 1: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눠 추진된다. 1차 사업은 271대의 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다. 2차 사업은 1629대의 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천=최영주 기자

광주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시민참여 활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에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오픈한지 40일 만에 130여 건이 제안됐다. 시민들이 제안한 후부터 30일 동안 공감수 100명을 얻어 토론이 진행되고 있

는 제안은 3건으로, '여성 안심도시 광주'를 비롯해 '먼지없는 클린광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다. 이번 플랫폼은 토론에 참여한 시민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련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에서 함께 검토·논의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진다. /광주=봉채영 기자

완도 양식장 찾은 18개국 해조류 전문가

품질에 놀라고 규모에 '엄지척'

'국제해조류심포지엄' 참석차 방문 60여 명 다시마·툫 양식장 등 방문 '해조류 양식기술 접목할 의향 있어'

전남 완도를 찾은 18개국 해조류 전문가들이 완도 해조류 품질과 양식장 규모에 감탄사를 쏟아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제23회 국제해조류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60여 명의 해조류 전문가가 최근 완도를 방문했다.

18개국에서 온 해조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해조류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찾아 해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 제품과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 들었다.

미국 에너지부의 마리너프로그램 디렉터 마크 본 키츠 박사, 세계자연기금(WWF)의 폴 다빈스 박사,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스캇 린달 박사 등은 완도군의 미역, 다시마, 김, 툫 양식장을 방문했다.

다시마 양식장을 둘러본 덴마크의 한 참가자는 "우선 다시마가 매우 커 놀랐고 신선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면서 "해조류 생산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키츠 박사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해의 해조류전문가들이 완도를 방문했다.

규모와 최상의 품질의 해조류 생산품에 매우 놀랐다"면서 "미국에서는 여러 규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근해양식의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에너지부에서는 최근 총 2천 200만 달러(약 250억)의 예산을 위해 해조류 양식 산업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우수한 해조류 양식 기술을 접목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에너지부의 해조류 양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김장균 교수는 미국의 전문가들과 동행하며 "한국의 양식기술과 미국의 해조류 양식의 생태계 서비스

스 접근 방식을 접목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군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조류심포지엄에 적극 지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는 해조류에서 미래를 본다"면서 "완도군에서는 해조류 양식과 해조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4년과 2017년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군은 2021년에 개최될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해조류심포지엄은 오는 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다.

/전남 완도=이제민 기자 wando1106@metroseoul.co.kr

'1000t급 함정 접안' 완도항 해경전용부두 준공

전남 서남해안 해상 치안 강화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가능

완도항에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가 완료돼 전남 서남해안 해상 치안유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전라남도도는 최근 해경부두 428m, 항만시설 부지 1만8000㎡를 매립하는 '완도항 해경전용부두 축조공사'가 준공 검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완도항 해경 전용부두는 최대 1000t급 규모의 함정을 포함한 해경함정 5척과 소형경비정 13척이 한꺼번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전라남도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6년간 총 357억 원을 들여 철재 부잔교 2기를 설치하고, 항만 배후부지 1만8000㎡를



완도항 해경 전용부두.

조성했으며, 기존 소형어선 정박시설(170척)을 확충했다.

이전에는 완도해양경찰서가 운용하는 최대 300t급 이하 경비함 3척과 50t급 이하 소형경비정 10척 등 총 13척은 항 안쪽에 위치해, 해양치안 유지를 위

해 수시로 긴급출동 상황이 벌어지는 해경함정의 이·접안에 불편이 있었으며, 상시 작전 수행 및 대형함정 운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완도해경이 단독으로 계류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서남해안권역에서의 신속한 출동 지원 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완도항의 혼잡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도는 이번 해경전용부두 이외에도 앞으로 완도항은 중앙방파제 확충, 외곽시설과 어항구 확충 등 대피항만 기능을 갖춘 다기능항만으로서 면모를 갖추 나갈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경 전용부두 축조로 해상 치안 유지능력과 해양사고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남 완도=봉채영 기자 bcy2020@

수도권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속도 낸다

타당성 조사 착수, 내년 4월 안료키로 인천시, 국비 117억 지역정기권 건의

정부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내년 4월까

지 마칠 계획이다.

인천~안산 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길이 19.4km,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1조 4875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1.01, 사전종합평가(AHP) 0.507로 대형 투자사업 추진 기준치인 B/C 1.0, AHP 0.5를 웃돌았다.

인천시는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국비 117억원 확보에 협력해 달라고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다.

이 도로 건설사업은 애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서가 제출됐으나 지난해 4월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전체 11개 구간(261.5km) 중 인천~김포 등 3개 민간사업 구간이 개통했고 6개 구간이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May 2nd, including a map of Korea with temperature spots and a list of weather indices like '운동 지수' and '빨래 지수'.